

KT-1 기본훈련기 출하기념식 열려...

항공산업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발전되는 신기원 이룩



하였다.

KT-1은 시범비행에서 급상승 기동 후 180° 회전한 후 관람석 앞 상공으로 진입, 360° 회전과 급선회 기동, 초저속 비행 및 수직회전 기동 등을 선보이며 탁월한 기동력과 뛰어난 성능을 과시했다.

이번에 생산된 KT-1은 지난 '88년도에 개발이 결정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대표:임인택)이 10여년간 국내 순수 독자기술로 설계에서 생산까지 제작한 것으로, 출력 950마력의 터보프롭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시속 648km 이상, 항속거리

1,7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길이 10.3m, 폭 10.6m, 기체높이 3.7m인 기본훈련기이다.

KT-1은 현재 공군이 초·중등훈련기로 운용중인 T-41, T-37의 노후화에 따라 기본훈련 과정에 사용할 교체후속기로서, 우수한 선회, 상승능력 및 기동성과 저소음, 낮은 연료소모율, 조종편의성 및 안전성을 갖추어 유사훈련기 중 최고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KT-1 사업은 '88년부터 '98년까지 11년간 총 1,047억원의 개발비와 수백명의 연구인력이 투입되어 진행된 범국가적인 항공기 개발사업으로, 체계형상설계에 대한 개발, 항공기에 대한 비행시험평가체계 구축, 국내 항공무기체계의 후속군수지원 능력 향상, 순수한 국내 생산·조립으로 높은 국산화율(품목대비 80.9%, 가격기준 60.4%) 확보 등 첨단 항공기 개발기술이 축적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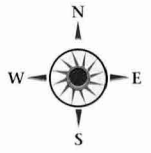
특히 이번에 개발된 항공기는 기본훈련기인 만큼 조종 학생들이 훈련시 직면하게 되는 실속(失速: 항공기가 양력을 잃어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나 스펀(spinn: 항공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항공기인 KT-1 기본훈련기(일명 '웅비(雄飛)') 1호기 출하기념식이 지난 11월 3일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 3 비행훈련단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KT-1 국내개발 생산의 사업경과 보고, KT-1 1호기 출하식 및 성능시범비행이 있는 후,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과 F-16 편대 축하 비행, 그리고 항공기 생산현장 순시가 이어졌다.

김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정부는 항공우주 산업이 21세기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중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오늘 KT-1 제1호기의 탄생이 뜻깊은 것은 연구와 개발, 설계와 제작의 모든 과정을 순수한 자체 기술로 개발해 우리 과학기술의 잠재력과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우리의 첨단 과학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항공우주산업계가 선두에 나서 줄 것"을 당부



기가 회전하면서 급강하하여 조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훈련 측면에서 유례없는 안전성을 보여 해외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98년에는 영국 항공잡지(Flight International)에서 세계 유명 항공기들을 시험조종했던 베테랑 조종사의 시승소감을 특집으로 보도했으며, 이때 성능과 안정성 면에서 동급 항공기 중 최고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금번 KT-1의 국내개발을 통해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맞아 항공기술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고, 우리 조종사들이 국산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갖게 될 자부심과 긍지를 생각할 때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KT-1은 우수한 능력과 동급 기종간의 성능에 대비



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 전망도 매우 밝아, 현재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국가와 터키, 에콰도르 등의 국가에서 수출 상담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기술력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9차 한·미 방산협의회 열려...

방위산업의 세계화에 따른 개혁의 의지 피력

한·미 양국 방산업체의 방산협력 방안 모색과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9차 한·미 방산협의회 회의가 한국측 배일성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과 미국측 Stan ARTHUR 공동의장 및 한·미 방산협의회 위원, 정부 관련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27일 홀리데이인서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미 방산협의회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미국방위산업협회(NDIA)와 함께 양국 방산업계를 대표하는 업체 인사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동 협의회는 매년 한·미 양국을 번갈아 오가며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렸던 제8차 회의에 이어 올해는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 배일성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관계 진전 등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 아래,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과 한·미 양국의 유대관계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하고, “한국 국방부는 미래지향적인 적정 군사력 건설의 필



요성을 잊지 않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방산업계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RTHUR 미측 공동의장도 "최근 한반도 내의 정세변화와 세계 방산업계의 신규 합병 등 현 시점은 매우 흥미로운 시기"라고 답변하면서, "오늘날의 주요 관심사인 군사혁신(RMA)의 개념은 산업계의 혁신과도 관련된 많은 토의사항들을 창출할 것"이라며 제9차 회의의 성과있는 결실을 기대하였다.

올해 제9차 회의에서는 한국측에서 국방부 획득정책관 실 김용환 대령의 「한국의 국방획득 개혁」 및 조달본부 김동환 군무원의 「해외조달계약의 일반조건」 소개와 미국측에서 Northrop Grumman ES&S社 Craig JOHNSON 부

사장의 「국방군수 개혁과 국제사업의 기회」, R.A. Evers 변호사사무소 Robert EVERS 박사의 「미국 국방조달의 미국산 우선구매법(BAA) 제약 및 도전과 기회」 및 「지적소유권(IPR) 보호」, 국방부 획득기술차관실 Eugene CHIN 태평양 군비협력부 차장의 「국제 방산협력의 도전과 기회」 등에 대한 발표와 함께, 자유토론 및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금번 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의 극심한 대외국 통제정책이 실질적인 개방의 단계를 거치고 있음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감에도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었다.

제8회 지상무기체계발전 세미나 열려

산·학·연·군 최신헌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교류



산·학·연·군 관련요원의 최신헌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미래 전략환경에 대비한 지상무기체계 발전과 소요 제안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 합참, 육군 등 군 관련기관과 국과연, 방산업체 관계자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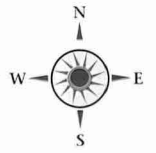
이날 세미나에서는 권태영 RMA 기획단장의 「무기체계 발전추세와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 장세풍 한국로스트웍스 사장의 「방위산업 발전 방향」, 정기원 숭실대 교수의 「무기체계와 정보화의 통합 비

전」의 초청강연에 이어 기동 분과, 화력/유도 분과, 정보/통신 분과, 항공/방공/화생방 분과, 탄약/타 분과 등 5개 분과 총 45개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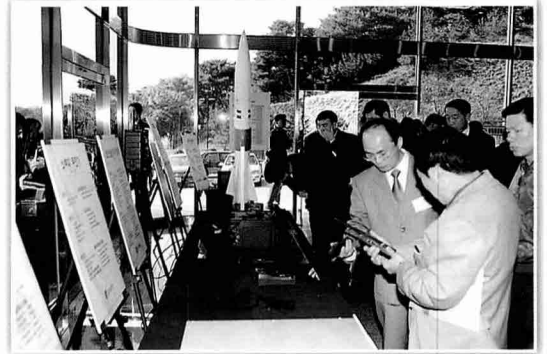
한편 최신헌 국내 연구개발된 다수의 지상무기체계 장비

육군

교육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 주최한 제8회 지상무기체계 발전 세미나가 지난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 Spider 장비를 선보인 삼성통신 CSF



▲ PRC-96K 등을 선보인 LG이노텍



▲ K형 살포지뢰 등을 전시한 한화

및 핵심기술 부품이 전시되었는데 대우통신에서 9밀리 소음 기관단총을, 삼성통신 CSF에서 Spider 장비를, LG이노텍에서 PRC-96K(소부대무전기) 외 11개 품목을, 연합정밀에서 상륙돌격장갑차(KAAV) 인터콧 외 3개 품목을, 위아에서 F-4 착륙장치 Drag Brace를, 풍산에서 155밀리 곡사포용 항력감소 이중목적 고폭탄, K310 외 10개 품목을, 한화에서 K형 살포지뢰 외 6개 품목을, 협진정밀에서 가속



▲ 각종 탄약을 전시한 풍산

도계 외 1개 품목을, 통일중공업에서 지뢰살포기 및 살포지뢰 외 2개 품목을 전시하였다.

또한 국과연은 신형개인지뢰독 및 신형 방독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체계(Mock up), 천마체계 축소모형(1:10), 정찰용 무인항공기 체계 축소모형(1:10) 등을 전시하였고, 벤처군수 10개 업체에서 개발 장비를 선보였다.

민·군 겸용기술사업 연구성과 발표회 열려...

사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대와 활성화 기대

국방부 는 지난 10월 24일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4개 부처와 공동으로 한 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민·군 겸용기술사업 종합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민·군 겸용기술사업은 산업경쟁력 및 국가안보역량 강화라는 2가지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과 군이 함

게 사용할 수 있는 공통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97~'98년 시범과제 수행에 이어 '9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총 64개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금번 발표회에는 민·군 겸용기술사업 현황과 민·군규격 통일화과제 현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어서 에너지/화학/복합 분과, 통신/전자/센서 분과, 기계/소재/공정 분과, 정보/제어/체계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총 26개 과제에 대한 연구실적 발표 및 18개 과제에 대한 전시회

가 열렸다.

본 발표회는 민·군 겸용사업이 시작된 지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그 동안 추진해온 연구개발 실적을 확인하고 민·군 겸용기술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사업추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4개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종합발표회를 갖게 된 것으로 금번 발표회를 통하여 민·군 겸용기술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대와 사업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0차 유도무기 학술대회 열려...

유도조종 및 체계분야 80여편 연구개발 논문 발표



80여편의 연구개발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논문발표와 병행하여 그 동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유도무기체계와 핵심 구성품 일부가 전시되어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조용수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환영사에서 "안정된 평화통일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의 정보화와 더불어 우수한 유도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논문발표에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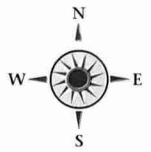
「21세기 군사혁신과 미사일」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권태영 국방부 RMA 기획단장은 21세기 군사혁신의 핵심 요소로서 정밀유도무기의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우리의 정밀 유도무기 전력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강연 내용 중에서 "미사일 부문을 선택해 집중전략을 구사한 국가는 생존과 번영을 약속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 점은 참가자 모두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국방

과학연구소는 유도무기 핵심기술 확보와 산·학·연·군의 유기적 관계정립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제10차 유도무기 학술대회를 11월 2일 개최하였다.

유도무기 학술대회는 지난 199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30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개최된 금번 학술대회에는 각계 인사 300여명을 포함하여 총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도조종 및 체계 분야에서



영천 대첩비 기공식 열려...

6·25 전쟁중 처음으로 대응하여 복진의 계기가 된 전투 기념

6·25 전쟁중 총반격의 출발점이 된 영천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영천대첩비 기공식이 지난 11월 1일 경북 영천시 고경면에 위치한 향군 묘지에서 열렸다.

6·25 당시 물 밀듯이 쳐 내려오는 북한군을 맞아 다부동 전투와 함께 국가 존망의 최후 저지선인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고 대역전의 전기를 마련한 영천 전투는 그 역사적 의미에 비해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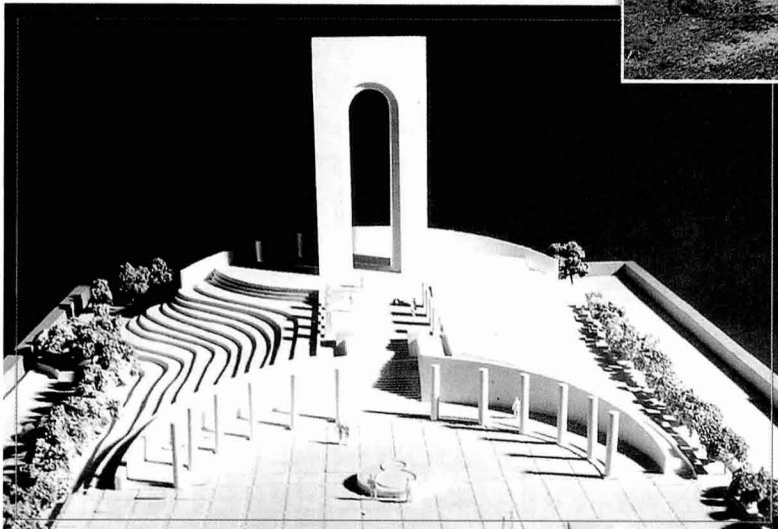
이에 당시 주력부대인 8사단의 역대 사단장을 중심으로 1997년 3월 영천대첩기념회(회장:김정무)가 발족되어 3년여의 활동 끝에 이날 뜻깊은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향군 묘지내에 자리잡을 영천대첩비는 산화한 영령의 넋을 달래고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며, 호국정신 고취 및 안보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영천전투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 본지 '99/6월호 「영천 지구 전투의 재조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우천중에 진행된 기공식 행사



◀주탑이 하늘을 떠받치는 사각형 2개의 기둥으로 개선문 모양을 나타낸 영천대첩비의 조감도